

**인천경제자유구역**  
Incheon Free Economic Zone

**박남춘 시장, “하나드림타운 ‘지역밀착형 관계금융’ 역할 기대”**

- 15일 하나금융그룹 HQ 착공식 앞둔 현장 점검서
- 공사 안전관리 만전 기해 차질 없는 준공 당부
- 하나금융타운 본격 운영시 인천 미래산업 기업 지원 기대감

부터 추진했다.

- 지난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를 준공해 약 1,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, 2단계 사업으로 2019년 그룹의 국내외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준공한 바 있다.
-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준공된 하나글로벌캠퍼스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병상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.
- 통합데이터센터·하나글로벌캠퍼스와 더불어 그룹 HQ가 들어서 하나드림타운이 최종 완성될 경우 본점 직원 약 1만명 가운데 6,000명이 근무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.
- 인천시는 하나드림타운이 본격 운영되면 8,773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,66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이와 함께 건설·인구·소비·영업활동·지방세 등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에 긍정적인 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.
- 이와 관련, 박 시장은 “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업 비중이 낮다. 그런 면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이번 청라 이전을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”며 “인천은 지금 바이오·수소·MRO·미래차 등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도시인만큼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지원해 주길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- 이어 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내에서 이뤄지는 대형공사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를 당부 드린다”며 “우리시도 여러분의 공사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조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'인천시

인터넷방송'(<http://tv.incheon.go.kr/>) '포토인천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